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

- 1950년대 이후의 흐름과 표현양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

양 상 호

(탐라대 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박 순 관

(탐라대 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주제어 : 지역주의, 지역적 정체성, 제주현대건축, 풍토건축, 글로컬 건축

1. 서론

모더니즘을 큰 축으로 삼아 전개된 20세기의 건축적 흐름 속에서, '지역성' 혹은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건축적 표현은 모더니즘의 상대가치(相對價値)로 작용하면서 현대건축을 이끄는 주요한 창작논리로 활용되었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0년대를 전후(前後)로 하는 시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건축의 이론적 영향에 따라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현대건축에서 지역성은 여전히 주요한 창작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건축의 현황과 양상을 지역성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평적 재검토를 시도하는 작업은 우리 건축의 지역성을 새롭게 논의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제주는 자연적, 지리적, 인문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등의 여러 면에서 다른 지역들과 구분될 수 있는 차이를 갖는다. 이는 제주 지역의 건축이 역사적으로 타 지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한국건축의 일반적 특성과는 다른 독특한 지역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지역적 배경(조건)이 되었다. 제주 지역의 전통건축과 근·현대건축에는 그러한 지역적 차이와 상황에서 비롯된 건축 내용과 특성이 추상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제주 지역이 경험해 온 역사적·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건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통민가와 주거건축의 특성¹⁾을 논하기

1) 藤島亥治郎, 「제주도의 건축」, 朝鮮과建築, 제4집 제6·7·8·9호, 1925, 김정기, 김홍식,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3, 강행생, 『제주도 안·팍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김석윤, 『제주도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6, 김석윤, 『19C 제주도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1996 등 최근까지 다수의 연구가 있다.

8 논문

나 마을공간을 조사²⁾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비해, 현대 시기의 건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과를 드러낸 바, 지역건축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분석적 서술이 가미된 비평적 고찰보다는 단편적인 에세이에 머물거나 혹은 전체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서술 하면서 건축물의 개요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현대건축의 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1950년대 이후 제주건축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건축의 전개양상을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으며,³⁾ 지역주의(지역성)를 핵심어로 삼아 전개된 일련의 경향들과 그에 속한 건축작품⁴⁾들이 드러내고 있는 표현상의 특성과 의미를 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2) 김홍식, 『성읍리 및 명월리 마을 조사보고서』, 제주도, 1978 이후 최근의 양상호, 「조천읍 조천리」 1999/ 신석하, 「한림읍 귀덕리」 2000/양상호, 「서귀포시 예래동」 2001/ 「한림읍 협재리」 2002, 「조천읍 선홍1리」 2006, 「한경면 조수리」 2008 등 다수의 마을공간조사연구가 있다.

3) 제주에서 지역주의와 연관된 건축적 흐름을 논함에 있어, 그 시작점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물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일반적으로 1950년대는 ‘해방직후’와 민족전란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아이콘과 묶여서 이해되고 있는 격변의 시기임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20C 한국사회의 독립적 단초를 상징하는 편의상의 경계선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前後)한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20C 한국의 건축(계)적 상황 또한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을 채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마련된 상황에서 당시 서양의 건축이테올로기와 표현 경향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시도될 수 있었던 기점(起點)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서 지역주의와 연관된 건축적 사례들 역시 1950년대 후반부터 읽혀질 수 있다.

4) 논문에서 언급된 건축물들은 제주 지역에서 시행된 건축상 입상작, 현상공모전 입상작, 지명도가 있는 주요 관공서 및 문화시설, 저널에 소개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삼아 일차적으로 선별되었으며, 각 경향별로 관련된 모든 건축물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혹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건축물들을 선택적으로 다루었다.

2. 지역주의의 문화적 함의(含意)

2-1. 문화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문화 영역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우고 그에 대한 상대항(相對項)으로서 지역주의 혹은 지역화를 새롭게 강조하는 노력은 이미 우리 시대의 문화와 건축을 이끄는 긍정적 방향임과 동시에 하나의 창작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연속성을 재확립하고 정체성(identity)을 정의하기 위한 욕구와 닿아 있다. 문화적 유산과 연관된 연속성의 파괴는 곧 급격한 도시화에 밀리거나 식민주의(植民主義)의 결과로 간주되며, 이는 신-식민주의라 불리는 것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자 가치인 셈이다.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정치와 경제 분야를 가장 큰 인자(因子)로 삼아 전 영역으로 확산된 세계화는, 단지 국가 간의 국제 교류가 자유롭고 활발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 곳곳의 문화적 양상과 인간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통신의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문화의 균질화와 다양화가 동시에 확산되었고, 세계화의 맥락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문화담론(文化談論)과 대안적 사고가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배경과 원인을 문화의 차이에서 거시적으로 논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식과 그에 따른 세계문화 구도의 재편성을 강조하거나, 근대사회 이후 선진 강대국 중심으로 일 반화되었던(혹은 강요되었던) 세계화의 현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역적인 가치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간의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이나 소수문화(minority)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문화의 지역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함⁵⁾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것(글로벌리즘)과 지역적인 것(지역주의)’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⁶⁾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 비서구 사회에서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비서구 사회가, 문화적 사유와 생산방식을 이루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세계화와 관련된 질곡을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서구 사회에서 흔히 논의되듯이, 세계화를 ‘서양화(westernization)’로 오해하는 것은 근대화의 결과로 남겨진 산물(產物)이다. 비서구 사회가 이룬 사회적 측면의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진보로써 의미화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문화적 측면의 성과로

치환되지 못한 문제성을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자국의 문화성 회복을 통해 해당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비서구 사회에서 수행된 이러한 노력은, 엄밀히 말해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적 차원에서 기획·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문화 시대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의미의 지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기와 내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비서구 사회의 모더니즘이 서구의 것과는 그 동기와 배경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과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지역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⁷⁾

2-2. 건축에서의 지역주의

모더니즘의 범위 내에서 국제주의적 건축양식을 주류로 삼아 전개되었던 20세기 세계건축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화시켜 볼 때, 그 하나는 모더니즘에 대한 문화적 반성과 그에 따른 건축적 실천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주도했던 유럽 서양 국가들과 비서양 국가들 간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에 따른 건축적 인식과 문화적 실천에 관한 것일 것이다. 지역주의는 이 둘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계된 테제이자 실천적 비전으로, 각 지역은

7) 다시 말해, 대부분의 비서구 사회에서 20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된 문화적 고유성은 서구 사회의 식민 지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사회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내셔널리즘(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지역(지역문화)’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含意)보다는 ‘민족이나 국가 또는 역사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세계의 보편문화 속에서 의미화 될 수 있는 문화적 총체성이나 다양성보다는 국가(민족)의 위상과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지역적 단편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현대의 문화담론 속에서 논의되는 문화의 지역주의(지역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이해 그리고 인문적 통찰에 의한 문화적 의미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의가 단순히 지역 내의 역사·문화적 단편들을 모아(이미지화)하는 편협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를 사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에 대해, 문명비평가인 사무엘 헌팅톤(S.P. Huntington, 1927~)은 탈냉전 시대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의 원인을 지역들 간의 문화차이에 두면서 현대의 다문화 사회가 보편적인 서구 문명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들 간의 문명(서구, 이슬람, 아시아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작용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에서 강조되는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한다. 반면, 에드워드 사이드(E.W. Said, 1935~2003)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제국주의 국가들로 인해 문화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그 어떤 문화도 그 자체로서 순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층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문화의 보편성은 결국 제국주의의 시장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 보편문화는 제국주의 문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거대 자본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세계 보편문화의 문제성을 넘어서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6)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논리는 각 지역의 문화적 근본과 지역성을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통해 세계적 가치와 의미로 재생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10 논문

고유의 디자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진자와 관련하여, 지역주의는 20세기 중반 너머까지 우세하게 작용해온 모더니즘의 교리(도그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모더니즘이 무시했던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보완적으로 가치화시킨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해 왔다.⁸⁾ 후자는 특히 비서구 사회(혹은 제3세계)의 신-식민지적 현실에서 그리고 급속하게 산업화된 아시아 나라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이슈화 되었다.

지역주의는 모더니즘이 구현했던 사회적 리얼리티에 대한 반성과 문화성의 회복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지역적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더니즘과 길항(拮抗)하는 양식적 대안이자 근대화과정에서 상실된 지역문화의 회복과 연관된 인식태도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의는 형태적으로 정해진 어떤 양식(style)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넓게는 건축을 사고하는 하나의 논리로서 그리고 작게는 모더니즘의 지역적 표현(Modernised Regionalism)으로서 더 의미화 되고 있다.⁹⁾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지역의 인문적, 자연적, 건축적 측면들과 연관된 다양한 요소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거나 혹은 공간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풍토성과 전통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다.¹⁰⁾ 지역주의 건축의 일반적인 개념과 전형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제주의 건축의 획일성에 대항하고 타 지역과의 건축적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연관된 새로운 시도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디자인 어휘를 제한했던 모더니즘의 이론적 폭과 표현의 한계를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창작의 근거를 지역적인 요소들의 상호결합에 의존하면서 모더니즘에 대한 배타적 개념으로 이해·활용되거나 또는 비서구 사회의 경우 서구화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시도되었다는 면에서 좁은 의미의 지역주의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지역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이 통용시킨 것으로 소위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라 불리는 건축적 사고(思考)이다. 이는 막연하게 모더니즘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지역주의와 풍토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의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단순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모두 부정적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역적 전통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종합과 재해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근대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주의와 모더니즘(또는 지역성과 국제성) 사이의 가치 확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역주의를 추구한다. 즉, 지역주의와 모더니즘을 반대되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국제화된 개념 아래서 서로 공존하며 통합 및 조화될 수 있는 건축을 의미한다.¹¹⁾

8) 지역주의가 거부한 것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국제주의의 양식이었으며, 건축은 더 이상 어떤 양식의 한계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주의의 양식의 확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9) 지역주의 건축은 '지역적 아이덴티티(Regional Identity)'를 확립하는 데 일차적 의도를 두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반응을 건축창작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지역을 초월한 국제적 보편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지역주의 건축은 시기에 따른 의미상의 변화와 함께 하나의 명확한 건축경향으로 기능해 왔으며, 모더니즘 이후 현대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적 역할을 했다.

10) 20C 초반 이후 서양에서 등장했던 풍토건축이나 유기주의 건축은, 비록 명칭과 의미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지역주의 건축의 초기 의미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 건축에서 어떤 정신적인 것을 발견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로 통칭되는 표현 경향은 일반적으로 기후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적 유산, 지역의 건축재료 등의 세 가지 측면과 연관된 개념적 범주에서 이끌어지며, 각각은 다양한 하위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 지역의 역사적, 자연적 환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표현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개념적 타당성과 감각적 이미지를 수반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지리, 물리적·정신적 유산, 역사적 사건, 민속, 생활양식, 신화, 종교 등과 연관된 가치의 개념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대문화의 지식과 정서면에서 소통 가능한 미적 효과를 지닐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연관된 ‘지역건축’의 비전이다.

3. 제주 지역주의 건축의 시기별 흐름과 전개 양상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기간 동안의 지역적 혼란,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도시 규모의 확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의 확대 그리고 2000년 이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실현 등으로 이어져 온 제주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제주건축은 넓게는 한국사회 전반의 건축적 이슈와 연관된, 그리고 좁게는 지역 내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된 지역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비록 제주에서 지역주의 건축과 연관된 지

속적인 맥락이 시기별로 명확하게 이어지면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의는 모더니즘과 더불어 제주건축의 전반을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경향이며, 또한 지역건축가들이 가장 무게 있게 다루어 온 건축적 이슈에 속한다.¹²⁾ 제주에서 지역주의적 경향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1980년대 전후(前後) 시기를 경계로 삼아 개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흐름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이론적 인식과 인문적 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950년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제 식민지배 아래서 구축되었던 모더니즘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적 건축 재료를 덧붙이거나 또는 자연환경과 연관된 시각적 이미지를 단편적으로 부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건축교육과 건축계의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지역 건축가들보다는 타 지역 출신 건축가들의 실천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경제개발에 따른 건축적 수요의 충당과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일차적으로 충실해야 했던 상황에서,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과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여유와 건축적 역량을 갖지 못했다.

지역주의적 경향에 대한 건축적 재인식(담론)과 그에 따른 건축적 표출은 한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흐름과 함께 지역성이 다

독립된 어떤 형태를 열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지역주의를 의미한다. 이 같은 사고는 국제적 모더니즘과 지역주의 사이의 개념적 충돌에 따른 변증법적 통합(dialectical unity)에 의해, 비판적 지역주의와 글로컬 건축이라 불리는 차원으로 아주 천천히 변형되었다. 글로컬 건축은 건축의 국제화와 건축의 지역화 모두를 반영하는 건축적 개념을 발휘한다.

12)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타 지역과의 교류에 의한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더디게 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문화적·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역 내 문화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창작의식을 확립하거나 또는 창작의 근거와 방향(경향)을 설정(표현)하는 면에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성을 강조하게 되는 지역적 배경이 되었다.

12 논문

시 중시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이후부터 강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당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힘입어 서구의 근대화와 근대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등장했던 시기로, 제주건축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의 영향을 받아 지역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방향을 모색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건축적 문제성을 총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제주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미지 회복을 이슈로 했던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제주건축의 진정성과 지역적 문화성을 다지기 위한 모임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³⁾ 이에 따라, 지역 건축가들의 건축설계도 지역적 주제와 연관된 성격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지역 내 건축계획 심의와 현상설계공모전의 심사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제주현대건축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지역주의 건축의 전반적인 양상은 모더니즘건축을 지역화하려는 의도(Modernized Regionalism or Regionalized Modernism)에서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적인 건축물에 지역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큰 맥락에서 볼 때, 그에 따른 접근방식은 제주사회의 흐름 속에서 각 시기의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들-1)전통건축의 가치 재현과 역사적 이미지의 추구 그리고 토속적 요소의 차용과 묘사, 2)지역적 풍경(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3)지역재료와 기술의 건축술과 연관될 수 있는 건축적 사고와 개념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전개되었다. 이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근대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종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른 건축적 표현 양상은 시기를 거치면서 몇 가지 전형을 드러냈는데, 초기에는 소위 ‘제주적인 것’에 대한 인문적 탐구와 연구·창작의 폭이 좁은 현실에서 주로 지역 재료를 단순히 건축물 표면에 마감하거나 부분적으로 덧붙이는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이와는 달리, 198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지역적 이미지의 회복이 점차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 문화가치와 연관된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념(주제)을 보여 주었으며,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표현의 정도도 직설적인 묘사보다는 상상적 재치(해학)와 추상성을 시도하는 추세로 전향되었다.

여기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출신 건축가의 수가 증가하면서 제주건축계 내의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점, 이와 함께 지역 외 건축가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 둘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려는 ‘지역주의화된 모더니즘(Regionalized Modernism)’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 제주의 사회발전과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축창작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 관광산업을 지역 특성화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역 이미지 확립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점 등이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지역주의와 관련된 건축적 표현의 큰 틀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실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 지역이 지니는 자연·지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역사·문화적 성분의 독특함에서 비롯한

13)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제주건축의 정체성 모색(제주건축사회 세미나)’, ‘제건사모(제주건축을 사랑하는 모임)’와 ‘제주건축포럼(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주관)’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하위개념을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타 지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상의 내용을 보여 주었다.

4. 제주 지역주의 건축의 유형과 경향

4-1. 전통적 가치와 역사적 이미지의 재현

지역주의 건축을 추구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접근방식들 중에는 지역의 역사적 형태를 참조하거나 변형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도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지역건축의 전통적 가치를 직설적으로 모방하거나 추상적 혹은 은유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며, 넓은 의미에서 ‘전통과 현대’라는 거시적 담론과 맞닿아 있다.¹⁴⁾ 이 경우, 전통건축은 물론 민속·공예 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전통적 요소들을 차용하거나 변형하는 미의식을 수반한다.

전통건축의 가치와 미의식의 재발견을 위한 논쟁과 시도는 20C 한국건축의 흐름을 지배해 온 거대담론들 중의 하나로서, 특히 1980년대 건축에서 전통적 형태의 시각화, 민가(民家)의 공간구조와 마을의 배치원리 등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점차 건축 그 자체의 틀과 상상력을 넘어 그 지역의 민속, 공예, 회화, 조각 등과 같은 2차적 요소로까지 확대되기도 하며, 때로는 지역적 정서를 상징하는 관념적 추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14)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담론과 양상은 지역 그 자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전통건축의 계승 또는 한국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논의를 한국성과 등가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건축의 방향과 의미(표현)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적 상상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더니즘의 일반적 유행 속에서도, 제주에서 전통적 가치와 의미에 기반하는 창조적 모색과 생산은 다른 차원의 건축적 이데올로기에 비해 특히 두드러지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삼아 추진된 제주의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서, 지역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창조적 재생산이 곧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적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처했던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195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양(量)과 질(質)의 모든 면에서 그에 대한 학문적 탐구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적 실천 또한 미비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지역주의와 연관된 건축적 흐름이 약한 상태에서 지역재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한국건축계 전반에 걸쳐 새롭게 일기 시작한 탈-근대건축의 유행과 함께, 제주에서도 지역건축의 정체성 모색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지 건축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 전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제주적인 것’에 대한 인문적 연구와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과 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전술했듯이, 제주에서 전통적 가치와 역사적 이미지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전개된 지역주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제주전통민가의 건축적 의미를 재생하거나 또는 토속적(또는 공예적) 조형요소들을 형태구성의 단편으로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80년대 이후의 건축적 흐름에서 훨씬 더 보편적인 접근방식으로 통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전통민가의 형태

14 논문

성과 공간적 특성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수준에서 전개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통미를 국수적인 시각에서 추구하려는 사실적 모방에 가까운 것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물적(物的) 대상으로 파악하는 일차적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겪는다. 서귀포 해안가에 위치한 씨빌리지(김인철, 1991)는 그러한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주의 지역성과 연관된 건축적 진정성보다는 사실적 재현에 의한 박제품을 통해 관광호텔로서의 상업적 낭만성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주의(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성의 의미를 단순한 시각적 표상으로 손쉽게 파악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걸맞는 건축적 정의를 생략한 채 ‘한국성(전통성 또는 민족성)’이라는 개념과 일정 부분 혼용(混用)하고 있는 데서 야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씨 빌리지(현재, 씨에스 호텔)(김인철, 1991)

넓은 의미에서, 씨빌리지 류의 경우처럼, 사실적 모방을 따르거나 혹은 단순한 박스형태 위에 전통적 지붕을 얹히는 것 그리고 전통건축의 단편들을 외부형태에 장식적으로 덧붙임으로써 지역성과 연관된 시각적 가치(향유)를 이끌어내려는 방식들은 모두 그러한 한계에 갇혀 있는 문제성을 드러낸다. 제주건축계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은 줄곧 문제시되어 왔지만, 아쉽게도 제주 지역 내의 주요 공공건축물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최근 시기까지 공공건축(특히, 관료건축)의 한 전형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디자인 기법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는 제주초가의 지붕을 연상시키는 등근 지붕과 처마선, 전통민가의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올래 등의 공간개념을 응용한 배치계획, 지역 재료(제주석)의 덧붙임을 통한 향토적 심미효과와 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때 1980-90년대에 걸쳐 제주건축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유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현상공모전에서 암묵적인 선정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김홍식, 1982년), 제주문예회관(김상식, 1985), 서귀포 시청사(한규봉, 1994), 국립제주박물관(김기웅, 1992), 제주관광센터(김기웅, 1993), 제주교육박물관(강행생, 1996) 등을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언급할 수 있다.



<그림 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김홍식, 1982) <그림 3> 제주문예회관(김상식, 1985)



<그림 4> 서귀포시청사(한규봉, 1994) <그림 5> 제주국립박물관(김기웅, 1992)

사실적 묘사, 추상적 재현, 상징적 차용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지니면서 이어져 온 이러한 양상은 제주건축의 지역주의와 연관된 다양한 함의를 보여준 보편적 현상임에는 틀림 없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성과 관련해 단순히 지역의 전통적 형태요소를 차용한 형태주의(formalism)의 시도에 머물거나 또는 지난 시기의 심미적 향수를 감상적으로 드러내는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함께 드러낼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성공작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¹⁵⁾을 비롯해, 모

더니즘의 형태성과 지역성의 이미지를 비교적 극적으로 풀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천주교 신 제주성당(김석윤, 1991) 등과 같은 사례들도 일면 이러한 한계에 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문화 혹은



<그림 6> 신제주성당 (김석윤, 1991)

은 지역건축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교감과 사고 없이 이루어진 지역주의 건축은 모더니즘(특히, 기능주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양상과는 다른 개념과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차원에서, 지역성과 연관된 기존의 상투적이고 인습적인 기법이나 이미지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역건축의 형태적 요소를 실험적으로 변형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토속적인 요소를 극단의 조형개념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주마을의 집합적 이미지를 지붕으로 형상화한 포도호텔(아타미 준, 2002)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주 오름의 부드러운 연결을 연상시키는 듯한 역동적인 지붕구조와 자유로운 건축형태를 통해 제주민가가 지니는 지붕선과 공간의 흐름을 경사지 위에 구현시켰다. 또한 제주돌담집(조병수, 1999)은 전통적인 제



<그림 7> 포도호텔 (아타미 준, 2002)



<그림 8> 제주 돌담집 (조병수, 1999)

주돌담이 지니는 풍토적인 텍스처어를 단지 외부마감에 덧붙이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지붕으로 치환시키면서 매스와 공간을 분절시키는 칸막이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으로까지 확대되는 특이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기당미술관(김홍식, 1984), 탐동해변공연장(김용철, 1995)이나 서귀포 월드컵경기장(황일인, 2002) 등과 같이 토속적 조형성에 기초한 건축조형을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재로 살려낸 경우도 있다. 기당미술관은 놀(날가리)의 형상을 뒷산을 배경삼아 묻혀 있는 토속적인 이미지로 그려냈고, 제주시 해안가에 세워진 탐동공연장은 원추형의 방사탑(防邪塔, 액운을 막기 위해 세운 원통형의 돌탑)을 형태적 모티브로 활용하여 조각적 형상에 가까운 강한 형태성을 보여준다. 이들 두 건축물들이 지역의 토속적 요소를 사실적 이미지로 그려낸 데 반해,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은 제주의 옛 돛단배인 ‘태우’의 이미지를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추상화시킨 사례로써 형태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과 연관된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방식, 즉 지역을 상징하는 토속적 아이콘이나 지역특산품¹⁶⁾ 등과 관련된 이미지를 건축

15) 제주자연사민속박물관은 전통민가의 형태성과 제주의 우주관을 가미시킨 공간분할체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건축물로서, 1980년대 지역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각 공간구성을 율(律)의 의미로서 해석하여 천(天)이 되는 태양과 소양 그리고 지(地)가 되는 태음과 소음의 4분법적 공간구성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건축형태에 있어서는 제주전통조각과 놀의 형태를 도입하여 지역성이 짙은 건축물로 평가된다. 김정훈,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 제주건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p.47 참고

16) 지역의 특산품과 관련된 개념적 의미를 건축물의 형태로 끌어들이어 시각화 시키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지역성을 암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제주의 경우, 감귤박물관, 해녀박물관, 오설록차박



<그림 9> 기당미술관
(김홍식, 1984)



<그림 10> 탑동공영장
(김용철, 1987)

물에 부여하는 도상학적 처리도 지역주의 건축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성과 공간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응용될 수 있는 건축적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건축의 의미와 표현수단을 확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양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의성이 결여된 도식적인 결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서귀포 월드컵경기장(황일인, 2002)

4-2 지역적 풍경(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지역주의는 때로 친자연적인 또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화되기도 한다. 그것은 자연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부정적 결과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과 건축의 실제적인 교감을 강조하면서 자연으로부터 건축적 영감을 얻는다. 즉, ‘건축화

물관, 돌문화박물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이중섭미술관이나 43공원시설 등에서처럼 지역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 가능하다.

된 자연 내지는 자연의 건축화’를 추구하는 차원의 관념적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구체화되어 왔다. 하나는 지역의 자연조건과 주변의 물리적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변 자연조건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적 소통-기후, 경관과 조망, 채광과 바람, 환기와 습도, 경사지의 활용, 스케일의 축소와 매스의 분절, 자연적 재료의 활용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조건들과 관련된 실제적(물리적)인 해결을 수반하며, 도심지 내에서는 주변 건축물과의 맥락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서귀포 월드컵경기장과 포도호텔은 이와 관련해 상당히 돋보이는 해결책을 보여준 사례들로 재평가할 수 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은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동장의 레벨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획하였으며, 한라산 자락의 중턱에 위치한 포도호텔의 경우에는 산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객실을 단층으로 낮게 퍼트림과 동시에 지세에 따른 불규칙한 패턴으로 엇갈리게 배열함으로써 의외의 극적인 효과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엇갈려 배치된 매스들 사이의 틈새공간을 활용해 원경(遠景)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2차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또한 겨울철 북서풍을 고려하여 바람을 등지는 모양의 배치와 지붕경사를 지닌 천주교 신제주성당(김석윤, 1991)은 도심지 내에서 바람에 대응하는 역설적 사례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자연을 실제적인 설계조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수준에서 형태개념으로 활용하거나 입면구성의 요소로 활용하여 일부분 시각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연이 지니는 부정형의 자유로운 선과 유기적 이미지를 응용하여 건축적 형

태로 치환해 내는 데 주력하며, 때로는 냉정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연에 맞서는 형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넓게는 제주 특유의 자연요소(경관요소)를 추상적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며, 좁게는 대지(site)가 놓여 있는 주변 지형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전자의 사례들로는 제주인이 설계한 첫 관공시설로서 바다 풍경의 이미지를 벽면에 회화적 기법으로 계획했던 남제주군청사(김한섭, 1965, 1990년 철거), 제주의 첫 근대상업시설로써 과도형 지붕과 선박형 원형창을 지닌 동양극장 및 동문시장(김한섭, 1965, 현 제주씨네하우스)¹⁷⁾, 옥상 부분에 해안 수평선의 물결 모양을 은유적으로 재현한 서귀포관광호텔(건축가 미상, 1968), 한라산과 오름(경사가 느린 봉우리를 일컫는 제주어)들의 어울림을 형상화한 제주관광민속관(김희수, 1996)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불규칙한 해안선의 이미지를 근대 건축의 자유조형으로 구현한 제주대 구 본관(김중업, 1967 완공, 1996년 철거), 오름과 해안선의 복합적 이미지를 자유곡선과 백색의 원형 돌출형태로 조합한 제주영화박물관(김석철, 1997), 주변 산세의 이미지를 기하학적 추상으로 풀어낸 핀크스골프클럽(이타미 준, 1998)과 보성리 근목이네집(김성무, 1990년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은, 실제적으로든 심미적으로든, 자연과의 건축적 교감을 강화·확대하려는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자연환경(풍경)에 대한 유기적 반응과 개성적 감각을 통해 건축작품의 구체적 의미를 찾는 행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될 점은, 자연에 대한 진솔한 접근과 함께, 낭



<그림 12> 남제주군청사 <그림 13> 동양극장 및 동문시장(김한섭, 1965, 철거) (김한섭, 1965, 철거)



<그림 14> 서귀포관광호텔 <그림 15> 제주민속관(미상, 1968) (김희수, 1996)



<그림 16> 제주대학교 구 본관(김중업, 1967, 철거)



<그림 17> 제주영화박물관 <그림 18> 핀크스골프클럽하우스 (이타미 준, 1998) (김석철, 1998)

만적이고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자연의 유기적 특성이나 의미를 자유조형 내지는 실험적인 형태로 시도하는 태도는 어떤 면에서 지역주의의 도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한 편으로는 건축가의 개성과 상상력이 강하게 반영된 제주영화박물관의 경우처럼 오히려 지역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남을 수도 있다.¹⁸⁾

4-3. 지역재료와 건축술(architectonics)의 탐구

지역의 전통재료와 기술(結構法)을 통해 지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역시 지역주의 건축의 실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다. 건축재료는 건축물 외부의 질감과 느낌을

17) 양상호, 제주일보 2005년 5월 12일자 참고

18) 김경수, 2002, 건축미학산책, p.203 참고

결정짓는 일차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가장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근대적인 것의 지역화’와 관련된 여러 방식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역재료(전통재료)에 의한 지역주의 건축의 추구는 그 지역의 긴 역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된 전통적 건축술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이해 위에서 재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감각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상의 기술적 이해와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것은 전통적 형태 속에 깃든 미학과 정신을 근대재료와 근대기술의 맥락 속에서 재현하는 고차원의 실천에 속하며, 또한 시각적 효과 이외의 촉각적 질을 부여하는 색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에 의한 지역주의 건축의 실천은 기술적·공학적 이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단순히 마감재나 부분적인 입면요소로 활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지역적 정서감을 높이는 등의 가벼운 미학적 시도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가치나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주의 경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엄밀히 말해, 지역주의 건축을 판단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측면으로서 논의되기보다는 오히려 앞의 두 경향들을 보완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화산섬이라는 천혜의 자연지리적인 조건과 그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근대 시기 이후에도 지역재료의 활용도가 육지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또한 그에 따른 건축적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면서 지역건축

으로서의 특성을 대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리적 쓰임새(시공재료)를 넘어선 건축미학적 의미를 지니며, 더 나아가 제주의 도시경관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적 비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세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무성격의 근대적 형태에 지역적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손쉬운 물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구체화되거나 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재료의 실용성과 미적 특성에 대한 창조적 이해와 변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지역적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건축의 리얼리티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 전자가 지역재료를 물리적으로 시각화 시키는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기법을 넘어설 수 있는 감각적 아이디어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역재료를 다루는 전통적 건축술(tectonics)-기술(technology)과 구법(構法)-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지적인 탐구를 요구한다.

나무, 돌, 흙, 새, 이엉 등과 같은 제주의 전통적인 지역재료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일명 ‘제주석(濟州石)’으로 통칭되는 돌재료(현무암, 송이 등)¹⁹⁾는 특유의 어두운 색감과 투박하고 거친 표면을 지니고 있어 강한 시각적 질감을 연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통기율(通氣率)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²⁰⁾ 전통적으로 돌담이나 벽체 등과 같은 건축적 쓰임새 이외에도 마을의 공간요소와 민속문화적(비석, 방사탑 등) 오브

19) 한동오,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pp.58-61참고

20) 반면, 오히려 그와 같은 강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신재료들-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세라믹, 유리, 스틸 등-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제를 실현하는 주된 재료로 활용되어 왔다.²¹⁾ 철, 유리, 콘크리트 등이 널리 통용되고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기 시작한 근대시기 이후부터, 제주석 역시 실제적인 구조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로 마감재나 장식재로 활용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재료에 의한 지역주의 건축의 실천은 활용방식과 기술적 응용 그리고 표현기법 등의 모든 면에서 논의될만한 특징적인 변화나 실험적인 결과를 드러냈다고보다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의 건축물을 포장하는 외피로 쓰이거나, (저지예술인마을 현대미술관, 김석윤, 2006) 부분적인 활용을 통해 타 재료와의 병치 효과를 피하거나, (애월읍체육관, 김석윤+이상현, 1994) 또는 내·외부공간을 꾸미는 장식적 또는 공예적 요소로 활용되는 등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림 19> 저지 현대미술관 (김석윤, 2006)



<그림 20> 애월읍체육관 (김석윤+이상현, 1994)

5. 종합 및 제언

:제주 지역주의 건축의 딜레마와 비전

20세기 한국건축의 흐름에서, 지역주의(혹은 지역성)는 전통성·역사성의 개념과 등가적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민족정서를 표현하는 형태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이 주를 이루어 왔다. 또한 지역성을 탐구하는 연구 태도 역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인문적 연구나 성찰 또는 해석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통건축의 형

태적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직설적 경향을 보여 주거나, 또는 지역성과 연관된 모티브들을 은유적으로 차용하는 추상적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 부연컨대, 여기에는 한국건축의 지역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역별 근거에서 찾기보다는 외국에서 도입된 이론적 범위 내에서 원론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추상적인 감각에 의존해 왔던 그간의 문제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언급했듯이, 지역주의는 하나의 양식(style)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작의 근본을 그 지역의 문화적 유산이나 실체 속에서 추려내어 각색한 후 다시 그 안에 재구축하는 작업과 관련된 사고방식이며 또한 실천적 비전이다. 그것은 곧 지역의 문화적 생명력을 지속시켜 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 지역주의 건축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건축’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즉, 그 지역에서 자생된 여러 차원의 고유한 특성을 창작의 근본으로 삼고 그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시켜 건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일,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무의미한 유행이나 어설플 논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당대의 문화적 가치와 감각에 호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 또한 여러 세대를 통해 그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키우는 일 등이 아마도 지역주의 건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큰 지향점이자 방향일 것이다.

20C 건축의 흐름 속에서,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ton)이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성과 기존의 상투적인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비판적 지역주의’

21) 김형남,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11권 1호, 2009 참고

역시 이러한 맥락과 멀지 않다. 덧붙여,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통합적 소통을 하나의 문화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현대풍토건축이나 글로컬 건축 또한 이와 동등한 맥락에서 논리적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담론을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과 연계시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이른 느낌을 갖지만, 1950년대 이후 제주건축의 흐름 속에서 ‘지역, 지역건축, 지역주의’라는 세 단어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와 그에 따른 분명한 흐름(현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나마 그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다음 단계의 전개를 위한 과정으로서 나름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변화에 따른 편익상의 시점인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 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 지역주의 건축의 흐름은 주로 역사성(전통성)과 자연성 그리고 지역재료 등의 세 측면과 관련된 주제의식과 표현양상을 드러냈으며, 또한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한계를 보여 주었다. 즉, 이들 세 측면은 각각의 방식으로 제주의 지역적 형태와 의미를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지역적 아이덴티티의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적 건축’에 대한 미적 인식의 폭이 넓어짐과 아울러 현대건축의 조형정신과 조우(遭遇)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몇몇 전형들을 생산해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덧붙여, 그러한 양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흘러 왔다는 점도 제주근대건축사의 한 특징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제주의 문화적 환경적 유산과 전통에 대한 창조적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인문적 상상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 단순히 동시대의 건축적 시류(時流)와 유행을 모델로 삼아 시각적 감성을 실현하는데에만 치우쳐 왔다는 부정적인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건축의 매너리즘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성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제주건축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적 이슈로 작용해 왔으며, 아직도 그 노정(路程)에 있다.

지역주의 건축(혹은 문화)에 관한 많은 담론들은 ‘지역문화를 창작의 근본개념으로 삼으면서 탈-지역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논의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역주의 건축이 지향하는 현대성의 한 측면이자 핵심이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제주에서 지역주의적 건축경향은 그 흐름 자체로서 제주현대건축의 전반적인 특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지역적 가치(요소)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거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 밖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현대성의 실현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 보인다. 제주건축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오늘의 현실에서 자칫 제주건축 전체의 문제성과 한계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다시 탐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주에서 지역주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재인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김경수, 『건축미학 산책』, 발언출판사, 2002.
2.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3. 김석윤, 「제주건축-지난 50년, 오는 50년」, 제주도공보관실편, 제주도 통권 100호, 1998
4. 김정훈,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 제주건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산업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1999
5. 김형남,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1호 통권32호, 2009
 6. 김호선, 「제주사회의 근대화에 따른 주택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김홍식, 「제주건축의 과제와 전망」, 대한건축사협회지 9911호, 1999
 8. 고창훈, 「제주문화의 사회과학적 연구-공동체의식-」, 제주도연구, 1984
 9. 박순관, 「친환경 건축의 개념적 함의와 기법적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2호 통권17호, 2004
 10. 신영훈 외,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1
 11.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12.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13. 양상호, 「지역성의 탐구와 제주건축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예연감, 2004
 14. 양상호, 『제주건축 6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60년사, 2008.
 15. 양상호, 「1950년대 제주근대건축의 지역적 표현에 관한 연구」, 탐라대 지역개발연구논문집, 2009
 16. 제주도 편,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1987
 17. 제주도 편,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 1997
 18. 제주도건축사회 편,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건축 2집, 1992
 19.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2004
 20. 한동오,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1.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제주의 건축』, 1999
 접수(2009. 4. 15)
 수정(1차:2009. 8. 7, 2차:2009. 11. 30)
 게재확정(2009. 12. 15)

Regionalism Architecture in Jeju Island

- A Critical Review of its Trends and Characteristics, since 1950's -

Yang, Sang Ho
(Assistant Prof., Tamna Univ.)
Park, Soon Kwan
(Assistant Prof., Tamna Univ.)

Abstract

This writing is to understand some trends and its meaning of Regionalism Architecture in Jeju Island since 1950's. This thesis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identity crisis implicit in the simultaneous striving for modernism and the so-called regional values in Jeju Island. Regionalism is a response in architectural terms to re-establish continuity in a given place between past and present forms, and also a unique result related to particular places, cultures and climates in region. This is one way of looking at the issues of regional identity.

The study began by observ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ideas on Regionalism in Jeju architecture. This means that tracing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Regionalism architecture in research area is not the focus of this thesis. The thesis demonstrates that Regionalism architectures in Jeju shows some trends related to the local cultural elements (or ideas) such like traditional architectural forms, natural environment, local construction-materials, etc. In summation,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ism architecture, most of buildings in Jeju bring out them only as vernacular architecture as it was once produced, by the simple combination and imitation without any creative interaction of the regional culture.

I stress the point in this paper that, in over the last fifty years, there have been very narrowed attempts to design the regional values in the main, and also point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manner in which local architects have gone about trying to define the regional themes. So, a grate depth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at Jeju area is with its various nuances of traditions, art, culture, climate and light and then to reinterpret it into the modern building type with all the high sense. In addition to that, some conclusions are reached on future direction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Keywords : Regionalism, RegionalIdentity, Jeju Contemporary Architecture, Vernacular Architecture, Glocal Architecture
